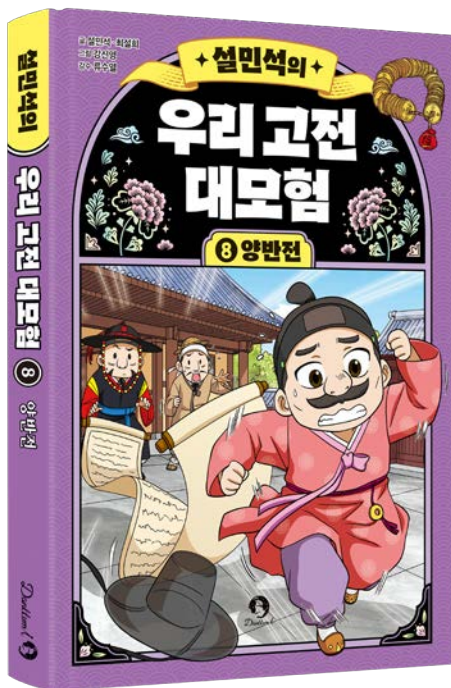


단꿈아이 독서지도안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 ⑧ 양반전
글 설민석·최설희 | 그림 강신영 | 감수 류수열



- 이 책은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8권을 활용하여 제작한 비매품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주)단꿈아이에 있습니다.

©Dankumi Corp.



〈양반전〉을 한번에 정리해 보요!

1

나라 쌀을 빌려 먹는 가난한 양반



양반

배가 고프니, 쌀을
더 빌려 주거라.

강원도 정선 고을에 한 양반이
살았는데, 몹시 가난해 나라의 쌀
을 빌려다 먹고 감지 못했어요.

2

양반을 가두어라!



빌려 간 쌀이 천 석에 이르자 강
원도 감사가 '양반'을 옥에 가두
라고 해요.

3

부자가 양반을 사다



부자

내가 쌀을 값아 주고
양반을 사야겠다!

소식을 들은 이웃 '부자'가 가난
한 '양반'이 빌린 쌀을 대신 값아
주고 양반 신분을 사요.



7

화가 난 부자



증서의 내용을 들던 ‘부자’는 도적놈이 따로 없다며 양반을 하지 않겠다고 화내고는 나가 버려요.

6

양반의 횡포



이번에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써 주었지만, 양반의 횡포로 가득해요.

4

양반 증서를 쓰다

군수

양반을 사고판 증서를 만드시지요!



군수가 나서서 ‘양반’과 ‘부자’가 양반을 사고판 내용을 증서로 만들자고 해요.

5

양반의 허례허식



증서가 양반이 지켜야 하는 허례허식으로 가득 차자, ‘부자’가 좋은 점도 써 달라고 해요.



교수님! 〈양반전〉은 어떤 책이에요?

◆ 양반의 무능력과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이야기, 〈양반전〉 ◆

지은이 박지원

시대적 배경 조선 후기

지은 시기 조선 후기

갈래 한문 소설, 풍자 소설

주제 조선 시대 양반 사회의 문제를 비판

〈양반전〉은 양반을 사고파는 과정을 통해 조선 시대 양반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고전 소설이에요. 살림이 가난해 관아에서 쌀을 빌려다 먹고는 갚지 못하는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동시에, 양반의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백성 위에 군림하는 양반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양반전〉은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횡포를 통해 양반답지 못한 모습을 풍자함으로써 선비다운 모습을 회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능력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해 주고 있지요.

《연암집》은 박지원이 쓴
한시와 편지, 수필 등 다양한 글을
모은 문집인데, 박지원의 호인
‘연암’을 따서 붙인 제목으로 여기에
〈양반전〉이 수록되어 있어요.



▲ 연암집
▲ 박씨전

❁ <양반전>을 쓴 연암 박지원

<양반전>을 쓴 사람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문학가인 연암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은 조선보다 발전한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자고 주장했어요. 또한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해진다.’라는 생각으로, 전통에 얽매인 규칙보다는 실용적인 방법이 중요하다고 믿었지요. 또한 <양반전>, <허생전>, <호질>과 같은 소설을 써 잘못된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판했어요.



▲ 연암 박지원

◆ 이 책을 함께 읽는 부모님·선생님께 ◆

<양반전>은 연암의 소설 중에서도 개성이 뚜렷합니다. 부자가 스스로 양반이 되기를 포기하는 반전이 있고, 그런 반전이 가능하도록 이끄는 군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양반의 허례허식과 특권적 횡포에 대한 노골적 풍자도 있습니다.

<양반전>을 통해 연암은 양반다운 양반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반이라면 허례허식에 빠져 불필요하게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이를 권리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양반이라는 귀족 계층이 없는 오늘날, 우리는 이 작품을 인간다운 인간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읽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류수열 교수



설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 남사당패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조선 시대의 남사당패는 전국을 떠돌며 공연을 하던 전문 예술인 집단이에요. 가난하거나 고아 출신인 남자들이 많았는데, 당시 신분 제도 속에서 중인이나 천민보다 더 낮게 여겨져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어요. 풍물놀이, 줄타기, 버나(대접돌리기), 탈춤 등 다양한 놀이를 선보여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고, 공연의 대가로 먹을거리나 돈을 받으며 생활했어요.



▲ 남사당패의 소고놀이

❁ 관아에서 쌀을 빌려주는 제도가 정말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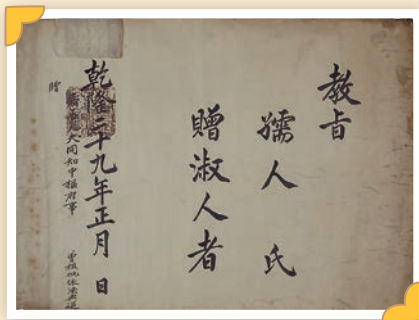
조선 시대에는 곡식을 관아의 창고 등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환곡 제도’가 있었어요. 환곡 제도는 먹을 곡식이 부족한 봄에 쌀이나 보리를 빌려주고, 가을 수확 후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제도였어요. 처음에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들의 부패로 이자를 과도하게 받거나 빌리지 않은 곡식까지 갚게 하는 일들이 생겨 백성의 삶을 더 힘들게 하기도 했지요.

❁ 조선의 ‘사농공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조선은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어요. 또한 가지고 있는 직업과 계급에 따라 ‘사농공상’의 순으로 대접을 받았지요. ‘사’는 선비, 즉 양반으로 가장 귀한 신분을 가지고 높은 권력과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농’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조선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었지요. ‘공’은 목수, 대장장이 등과 같이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이었어요. ‘상’은 물건을 사고파는 장사꾼으로, 당시에는 사농공상 중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어요.

❁ 정말 양반을 돈으로 살 수가 있었나요?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양반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7년이나 되는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농사지를 땅은 황폐해졌어요. 그 결과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지요. 당시 임금인 선조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이름 쓰는 칸이 비어 있는 관직 임명장’인 ‘공명첩’을 만들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공명첩을 나라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돈을 받고 팔았어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공명첩이 지나치게 많이 발행되면서 양반의 수가 많아지고 신분 제도가 흐트러지게 되었지요.



▲ 공명첩



설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봐요!

Q <양반전>의 ‘양반’이 쌀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반’이 가난하게 살게 된 이유는 일은 하지 않고, 신분에만 의존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양반’은 스스로 생계를 마련하지 않고, 방에 앉아 글공부만 했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물려받은 재산이 줄고, 결국 관아에서 쌀을 빌려다 먹으며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Q 양반이 진짜 양반다워지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양반이 진짜 양반다워지려면 타고난 신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양반으로서 올바른 행동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통해 쌓은 지식과 도덕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늘날에도 <양반전>의 양반과 같이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날 ‘갑질’ 문제는 큰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야.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막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오늘날에도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행동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법이나 규칙을 무시하는 일도 많이 일어나지. 특히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



.....

.....

.....

쑥쑥 들어오는 어휘력 노트

사족 조선의 지배 계층이 되는 집안이나 그 자손을 가리켜요. P.30

석 곡식을 세는 단위로, 1석은 약 160킬로그램에 해당해요. P.31

군자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을 말해요. P.44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에요. P.63

허레허식 형편에 맞지 않게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미는 것을 말해요. P.79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본래 있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를 입힌다는 속담이에요. P.83

진사 과거의 예비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이후 대과에 합격해야 벼슬을 받을 수 있어요. P.95

자 길이의 단위로, 1자는 약 30센티미터예요. P.96

탄탄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순탄한 장래를 이르는 말이에요. P.97

일산 햇볕을 가리려고 세우는 큰 양산을 말해요. P.99

양반은 죽어도 문자 쓴다 그 어떤 상황에도 체면을 지극히 생각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이에요. P.121

꼭두쇠 남사당패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P.123

잘 읽고 이어지는
문해력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읽고 푸는 문해력 퀴즈

- 1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에 ○ 해 보세요.



“어떤 놈의 양반이 나라의 쌀을
천 (석/냥) 씩이나 훔쳤단 말이냐?”

- 2 군수가 만든 양반 증서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

- ① 양반은 더워도 소매를 걷어붙여서는 안 된다.
- ② 양반은 글씨를 쓸 때 줄을 빼돌빼돌하게 쓴다.
- ③ 양반은 이웃집 소를 빌려다 자기 일을 먼저 시킬 수 있다.

- 3 글을 읽고 뜻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세요.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범 무서운 줄 모른다.

4 <양반전>의 내용으로 맞으면 ○, 틀리면 × 해 보세요.

- ① ‘부자’는 양반 행세를 하며 평평거리고 싶은 마음에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
- ② ‘양반’은 천 석이나 되는 쌀을 값올 방법이 없어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
- ③ ‘부자’는 군수가 만들어 준 양반 증서의 내용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

5 <양반전>을 읽은 뒤,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

- ① 순이: 집구석에 쌀 한 톨도 없어 나라 쌀을 빌리다니, 허울만 좋은 양반이네!
- ② 돌쇠: 우리 조선은 양반이 있어 잘살고 있으니, 쌀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었어야지!
- ③ 주모: 양반 증서 내용을 들어 보니, 부자가 필요 없다며 박차고 나간 것도 무리가 아니야.

6 단어에 알맞은 뜻을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 | | |
|--------|----------------------------------|
| ① 버선 ● | ● ㉠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발에 신는 물건. |
| ② 갓 ● | ● ㉡ 예전에,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물건. |

7 글을 읽고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보세요. ()

칠성이의 가문은 몰락한 양반이에요. 칠성이의 부모님은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 아무도 모르는 외딴곳에 숨어 살고 있어요.

- ① 삼척동자도 다 안다.
- ② 제 껍에 제가 넘어간다.
- ③ 양반은 죽어도 문자 쓴다.
- ④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8 <양반전>을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맞춰 보세요. ()

- ㉠ 강원도 감사가 나라의 쌀을 축낸 죄로 ‘양반’을 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 ㉡ ‘양반’이 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자’가 쌀을 대신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샀어요.
- ㉢ 강원도 정선 고을에 사는 한 ‘양반’이 너무 가난해 관아에서 쌀을 빌려다 먹고 갚지 못했어요.
- ㉣ 군수가 양반을 사고판 증서를 만들어 주는데, 그 내용을 들은 ‘부자’는 도적놈 같은 양반은 하지 않겠다며 나가 버렸어요.

① ㉠-㉢-㉡-㉣

② ㉣-㉠-㉢-㉡

③ ㉢-㉠-㉣-㉡

④ ㉢-㉡-㉣-㉠

한 장으로 정리하는 독서 일기



미호의 독서 일기

1. '양반'은 나라 쌀을 계속 빌려 먹을 만큼 스스로 밥벌이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2.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하자, 해결 방법을 찾기는커녕 훌쩍훌쩍 울기만 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했어.
3. 박지원은 이 책을 통해, 백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설쌤의 독서 일기

1. <양반전>은 허례허식을 일삼고,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는 양반들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2. 겉만 번지르르하고 권위를 드러내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의무 먼저 행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





재밌었던 장면, 베스트 3

인상 깊은 문장이나 대사, 베스트 3

정답 및 해설

1 정답 석

해설 '석'은 곡식을 세는 단위로, 1석은 약 160킬로그램에 해당해요.

2 정답 ②

3 정답 하룻강아지

해설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예요. 여기서 '하룻강아지'는 '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강아지'를 뜻해요.

4 정답 ①-O, ②-X, ③-X

해설 '양반'은 천 석이나 되는 쌀을 갚지 못해 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으나,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고 대신 이를 갚아 주었어요. 그리고 군수가 만들어 준 양반 증서의 내용을 들던 '부자'는 도적놈 같은 양반은 하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나갔어요.

5 정답 ②

6 정답 ①-㉠, ②-㉡

해설 '버선'은 '천으로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발에 신는 물건'을, '갓'은 '예전에, 어른이 된 남자가 머리에 쓰던 물건'을 말해요.

7 정답 ③

8 정답 ③

해설 강원도 정선 고을에 사는 한 '양반'이 너무 가난해 관아에서 쌀을 빌려다 먹고 갚지 못했어요. (㉠) 강원도 감사가 나라의 쌀을 축낸 죄로 '양반'을 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 '양반'이 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자'가 쌀을 대신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샀어요. (㉢) 군수가 양반을 사고판 증서를 만들어 주는데, 그 내용을 들은 '부자'는 도적놈 같은 양반은 하지 않겠다며 나가 버렸어요. (㉤)